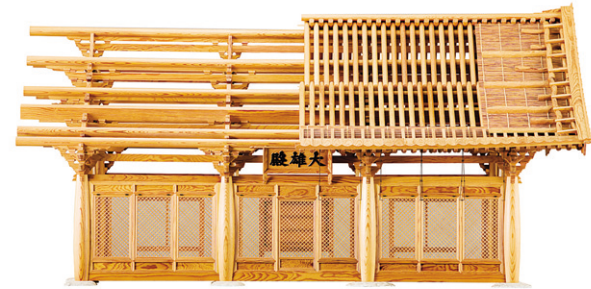


배흘림기둥에 빠져볼까?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목조건축展

6월 27일까지



고려시대 대표적 목조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의 측면 모습.



부석사 무량수전의 주심포 기둥과 배흘림 기둥.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승례문을 재현했다.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변천사를 한 눈에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상설전시실 1층에서 '우리 목조건축, 어떻게 변해왔나' 전을 6월 2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목조건축물 모형 44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목조건축의 특징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불교의 발전에 따른 목조건축의 변화도 파악해 볼 수 있어 의미가 더 깊다.

목조건축은 서울 암사동과 파주 교하리 움집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신석기·청동기시대 움집의 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집모양 토기 등 관련 자료와 고려·조선시대의 주요 목조건축물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해냈다.

목조건축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하던 인간은 신석기시대에 건축이라 부를 수 있는 움집을 만들게 된다. 움집은 땅을 파내 나무와 풀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구조의 움집이다. 움집은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고, 마을이 생기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갔다.

삼국시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과 불교의 전래로 인한 사원건축이 성행하면서 기와집이 발달했고 이전에 비해 웅장하고 다양한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 9층 목탑이다. 재료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고구려의 무덤벽화, 백제·신라의 석탑, 집모양토기 등을 통해 당시 조상들의 지혜와 뛰어난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목조건축의 전성기였다. 고려 말에 나타난 다포계 형식은 이전의 주심포계 형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고유의 건축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시대는 궁궐, 관아, 서원, 사찰, 일반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목조건축 중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객사문을 비롯한 광화문과 근정전 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들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신용수 대목장에 의해 다시 제작돼 고건축의 아름다운 미를 다시 한 번 발산한다. 특히 2년 전 화재로 소실됐던 승례문이 모형으로 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은 "우리 목조건축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표 목조건축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전시인 고려실과 조선실 등을 연계해 관람하면, 건축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시대를 아우르는 대표 목조건축모형과 함께 건축물 사진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전시된다.

또한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변화된 건축 도구도 관람할 수 있다. 처음에 돌로 만들어진 도구가 청동이나 철로 바뀌는 과정까지, 시대에 따른 건축도구의 종류와 변화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영상실에서는 '만월대의 고려왕궁'과 '80년 전 사진으로 보는 우리 목조건축' 영상물도 상영된다. (02)2077-9000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깨달음 향한 항해는 끝나지 않았어

수덕사 선미술관서 東大 김대열 교수 선화전

계절의 깨달음을 알려주는 꽃망울이 터지는 봄날, 또 다른 깨달음을 알려주는 선화(禪畵)전이 열린다. 동국대 김대열 교수는 최근 개관한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선(禪)'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시심마(是甚麼)'를 화두로 작품에 매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두를 통해 얻어진 자신의 선적(禪的) 깨달음을 그림과 글로 함께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김대열 교수는 "선적(禪的) 깨달음이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라면서 "그 내용을 언어나 문자로 설명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행위가 없고 형상이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말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선화는 은은하고 담백하면서도 강렬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묵의 향과 그가 써내려간 글귀들은 어딘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느낌이 든다. 작품은 작가 개인에 대한 화두이지만, 선은 삶에 대한 화두다. 많은 사람이 김 교수의 작품에서 조형언어로 표현된 메시지에서 선 이야기를 듣는 까닭이다.

김대열 교수가 이 시대에 들려주기 위한 이 시각언어는, 단순한 작품을 넘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던진 화두의 해답들이다.

김대열 교수는 "자신의 작품이 배라면, 아직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노를 저어가고 있는 중"이라



'선(禪)'을 주제로 한 동국대 김대열 교수의 수묵화 작품.

말했다. 4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봄날 꽃향기를 맡으며, 그가 걷는 배에 올라 禪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자. (041)337-6565 이은정 기자

트라팔가에 새겨진 우리 나무 부처님

런던서 '부처가 입을 열다'展

한국의 불교문화가 영국 런던 한복판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선보인다.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원용기)과 목야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부처가 입을 열다' 전을 4월 10일~5월 29일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주영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박찬수 목조각장의 작품 60여 점을 비롯해 목야불교박물관이 소장한 불교예술품 73점이 소개된다.

박찬수 목조각장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부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 전시는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마련된 전시로 한국 전통불교미술품들을 통해 한국 전통불교미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에는 불교에 생소한 영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된다. 전통다례, 템플스테이, 불교영상 상영, 불교워크숍 등 불교관련 행사와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연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추규호 주영대사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양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다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영국 런던 트라팔가에 소재한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전시될 박찬수 목조각장의 '나는 누구인가'.

기회이며,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회"라면서 "한영 양국간의 우호도 한층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885-9952, www.moka.or.kr 이은정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영사 이미지홍불탱화

禪의 일상 禪의 느낌! **방거사 어록**

실증의 일구 실증의 법문 **실증설**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연승 30권 중 15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신간! 실증설(實證說) 2010년 2월 14일 구정을 맞이하여 불자들에게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날날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말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